

카메라 앵글에 담은 소외지역의 삶

「밥상공동체사람들」 등 우리사회의 그늘 조명한 사진집 잇달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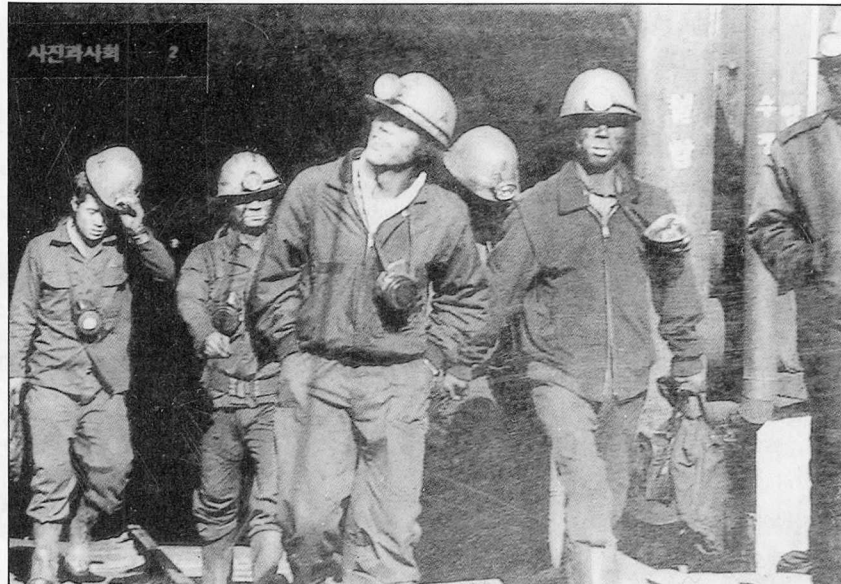
산업화된 도시의 뒷골목이나 가난하고 병든 이웃, 이제는 사양산업이 되고 만 폐광의 잔영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과 소외된 이웃들을 카메라에 담은 몇권의 사진집들이 출간돼 잔잔한 감동을 뿌리고 있다. 일찍이 사진작가 최민식(65)씨는 “나는 호화주택에서 여유있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보다 가난한 민중의 삶에서 더 큰 인간의 진실을 발견한다”(최민식걸작사진집 「이 사람을 보라」, 분도출판사)라며 30여년간을 오로지 눈물겹도록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의 얼굴을 사진에 담아 온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 출간된 이와 비슷한 범주에 묶어볼 수 있는 몇몇 사진집들은 산업화의 그늘에서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지역, 소외된 민중의 군을 렌즈에 담음으로써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사회의 구석들을 들여다 보게 한다.

고발성 짙은 소외의 현장

최근 나온 이승원씨의 사진집 「밥상공동체 사람들」(눈빛)은 빈익빈 부익부의 극단을 보여주는 서울의 청량리, 그 가운데서도 청량리驛驛과 시장을 주변으로 한 일명 ‘오팔팔’이라 불리는 유탕과 빈민가의 사람들을 사진에 담고 있다. 그곳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명단에서도 누락된 무의탁 행려자, 노숙자, 지피족들이 제집처럼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곳이다. 또한 그곳은 ‘다일공동체’(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구하는 공동체라는 말의 줄임말) 최일도 목사를 중심으로 무료급식이 몇년째 시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진작업을 해온 작가 이승원씨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지만 화려한 도시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이 ‘그늘’을 단순한 볼거리로 재현하지는 않는다. 고무다리를 이끌고 구걸하는 결인, 간이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긴 줄로 서 있는 행려자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조심스럽게 소개하면서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의 현장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는 물음을 제기한다.

‘소록도 사람들’ ‘자전거 국토 기행’ 등의 사진전을 가진 바 있는 조승래씨의 「꽃동네 사람들」은 “인간의 소외를 낙원으로 바꾸어주고 있는 현장”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충북 음성군의 ‘꽃동네’ 사람들을 피사체로 잡는다. 구걸할 힘조차 없는 병든 결인들과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꽃동네’의 설날아침 세배 풍경,



김재영의 「검은 산 검은 하늘」
장성광업소 1989.



이승원의 「밥상공동체 사람들」

“언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는 말로 유명한 ‘살아있는 작은 그리스도’ 최경락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 등을 수록하고 있는 이 사진집의 후기에서 작가는 “그들은 우리가 쉽게 짐작하듯 비참한 사람도 슬픈사람만도 아니었다. 그들의 의지가 나를 위로하고 영혼을 맑게 했으며 참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다”고 촬영소감을 밝힌다.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검은 산 검은 하늘」(눈빛)은 사진이 주를 이루고 사진평과 후기가 짝맞하게 붙어 있는 여느 사진집과는 달리 사진과 사진의 이해를 도우는 글이 적절히 배합된 독특한 사진집이다. 이 사진집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인해 ‘폐광’이 속출하고 있는 강원도 태백 인근의 광산이 배경이다. 우성탄광, 풍산탄광, 대동탄

광, 장원공업소 등 이미 간판을 내렸거나 폐광 직전에 처한 막장의 썰렁한 풍경 옆에는 줄지에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진 광부들의 얼굴들이 잠한다. 부모의 시름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석탄더미 위에 올라노는 아이들의 얼굴은 그저 맑기만 하다. 태백에서 자라 태백에서 줄곧 사진활동을 해온 김재영씨의 사진에다 역시 태백이 고향인 소설가 김규성씨가 직업병과 막막한 생계 앞에 좌절해 있는 광부들의 실태를 르포 형식의 글로 고발한다.

“가난해서 더 소중한 행복”

대도시의 쪽쪽 뺏은 대로의 뒷면에서 서민들과 회로애락을 함께해온 ‘골목길’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김기찬씨는 그 골목을 둘러싼 서민들의 삶을 흑백과 칼라필름에 고루 담은

「골목안 풍경」(열화당)을 모두 3권 내놓았다. 그의 카메라가 포착하는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중림동, 도화동, 행촌동 일대의 꾸불꾸불 이어지는 미로 같은 골목들이다. 거기에는 때절은 런닝셔츠 바람으로 복덕방 평상에 무심히 앉아 하루해를 보내는 노인들, 골목을 부엌안 양 차지하고 나 앉은 누추한 살림살이들,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면서 이웃의 생일상에 둘러앉는 동네사람들의 모습 등 곤궁해 보이지만 건강함을 잃지 않는 서민들의 생활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사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고발하고 있다기보다는 “한 골목 안에서 같이 살고 같이 학교도 다닌” 친구들에 대한 작가의 ‘골목길 추억’(작가후기)과 어우러지면서 개발에 밀려 점차 골목길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더 진하게 느끼게 한다.

김영만씨의 「유머가 있는 풍경」(사진예술사)은 공원벤치에 망연히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나 배추다발을 이고 계단을 오르는 아낙의 모습, 불럭이 반쯤 달아난 서민 가정의 마당을 비추고 있지만 노인의 양말에서 삐죽히 나온 천원짜리 지폐나, 머리에 이고 가는 배추가 마치 만개한 꽃처럼 필러이는 장면이나 마당 빨랫줄에 코믹한 모습으로 걸려 있는 인형의 얼굴로 시선이 옮겨지면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도 낙천성을 잃지 않는 서민들의 소박한 삶을 포착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자와 약자, 빈자와 부자의 대립이 존속하는 한 결코 나는 휴머니티한 사진을 잊어버릴 수 없다. 오직 가난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사진이 그들의 무한한 행복을 위하여 바쳐질 수 있다면...” 한 사진집의 후기에서 빌어온 이 빈자에 대한 헌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척박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고발한 일련의 사진집이나, 곤궁한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건강한 생명력을 보여준 사진들이거나 간에 양쪽이 모두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무한한 행복’에 바치는 헌서들임에는 동일하다 할 것이다.

— 정혜옥 기자